

전통 기술로 만든 생활용품 한곳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전시 전당 "볼거리·느낌 점 많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서울 삼성동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서울 디자인페스티벌'에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을 전시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조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지역에 특화된 전통공예기술을 발굴하고 쓰임 확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사업'과 전통문화자원원과 현대적 디자인·기술을 융합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통문화 융복합상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결과물 40여점의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전시 작품으로는 평범한 머그컵에 전통의 옷을 입힌 '청화백자 머그컵'을 비롯해 전통 옷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금속과 목재를 정밀한 입체 CNC가공한 '한웃' 등이 있다.

특히 디자이너 김주일 씨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김수영 유기장의 협업 작품인 '합-채움'은 기존 무광 또는 유광 등 단일 색으로만 이루어졌던 유기제품과 달리 상단은 무광, 하단은 유광으로 불리해 화병을 만들으로써 상하 대비에서 오는 심미성을 극대화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통적 색채에 현대적 디자인이 가미된 독특한 상품들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가 서울 삼성동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관심을 드러냈다. 전당의 전시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은 "전통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 제품을 만든다는 게 놀라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인과 디자이너 협업으로 추진된 이번 전시에는 8명의 장인과 7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참여 장인은 안성 김수영 유기장, 군산 임순옥 칠선장, 익산 소목명 야권원덕 작가, 남원 목기 공예 이진우 작가, 남원 유남권 옷칠 작가, 전주 도예 공예 진정옥 작가, 남원 옷칠 감용호 작가, 담양 죽곡에 장성원 작가 등 총 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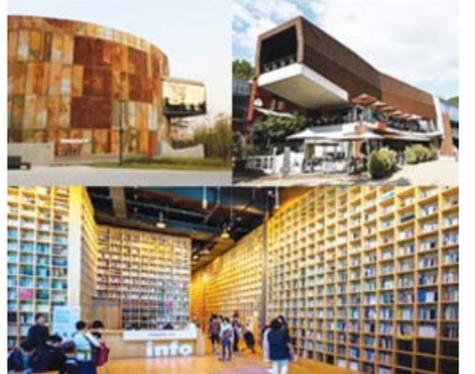
디자이너는 강신재 보이드플래닝 대표, 최용철 웅갤러리 관장, 박재우 지음아틀리에 소장, 정소이보머스디자인 대표, 김주일 디자인주 대표, 박현주 포트폴리오 대표, 김진식 스튜디오진식 대표 등 7명이다.

오태수 원장은 "전주, 안성, 담양, 군산, 남원 등 전국에서 전통문화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와 기술로 상품을 개발한 만큼 볼거리와 느낌 점이 많은 전시"라며 "우리 전통을 즐기고, 실생활에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감각적 건축물·문화·예술공간 살펴보기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마당 '12월 도시기행' 서울 문화비축기지 등 3곳 탐방·참가자 선착순 모집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마당이 공동 기획한 '12월 도시기행'은 감각적인 건축물과 문화와 출판 그리고 예술 공간을 볼 수 있는 서울의 '문화비축기지'와 '패주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을 찾아 간다.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매봉산에 에워싸인 '문화비축기지'는 41년간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됐던 산업시대 유산인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문화공간이다.



총구장 22개 크기인 14만㎡ 부지 가운데 개방된 문화마당이 자리하고 6개의 탱크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한 '재생'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도시재생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

함께 둘러보는 '패주출판도시'는 출판에 관한 기획과 편집, 인쇄와 물류 그리고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출판유통 구조의 현대화를 꿈꾸던 출판인들이 모여 조성하기 시작한 지금은 시대를 앞서 나간

건물들이 더해지면서 이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그 외에도 15만명의 문화예술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 '헤이리 예술마을'도 12월 도시답사의 목적지다. 길 따라 걷다보면 시대를 앞서 나간 재미있는 건축물을 하나둘 만나게 된다.

기행 참가자는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73-4823~4. /정해은 기자



여성교육문화센터, 내년도 일반교육 가지각색 과목 체험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는 지난 8일 도내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2018년도 일반교육 가지각색 과목 체험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지각색 과목 체험전'에서는 퍼지컬 코딩, 스피치, 메이크업, 가곡교실 등 25개 다채로운 강의 시연과 캘리그래피 엄서쓰기, 절편 찜기 등 11개 과목의 전시 및 체험이 진행됐다. 도민 500여명이 함께하며 배움을 통한 즐거움과 자기개발의 기쁨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수강생 A씨는 "이번 참가의 기회로 나에게 적합한 강의를 선택하고 꿈을 키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수미 센터장은 "오는 2018년도 더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내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연 4기 200여 과목 5,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 현재 2018년 제1기(1월~3월)에 진행될 일반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2018 일반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3 또는 홈페이지(www.jwec.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강경태 감독작 '아지트' 본격 촬영 돌입

전북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되는 강경태 감독의 영화 '아지트'가 지난 4일 전주 삼현동에서 크랭크인을 알리며 본격 촬영에 돌입했다.

전북도와 (사)전주영상위원회의 '전북 문화콘텐츠 융복합' 사업 선정작인 '아지트'는 2015년 지역극단 '까치동'에서 초연된 연극 '수상한 편의점' (최기우 원작)을 각색해 영화화 했다.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이곳에 모인 평범한 소시민들이 갑질과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에 맞서 자경단이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연배우로는 드라마 '원티드'에서 능력자 연우신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 박효주와 '응답하라 1994'에서 탁월한 사투리 연기로 주목을 받은 도희가 각각 경선과 세영 역에 캐스팅 돼 촬영을 진행 중이다. 강경태 감독은 '오늘영화', '아무것도' 등 단편영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영화 '아지트'는 2018년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근대문화 도시의 방향성과 과제 함께 고민하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식서 13일 정책세미나 열어

전주·인천·목포·군산 등 도시별 사업 추진과정 비교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오는 13일 박물관 규장각식사에서 '제3회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는 전국 근대화도시에 대한 사례 비교를 통해 군산의 근대문화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근대문화 4개 도시의 방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산, 인천, 목포, 전주 등의 근대화지원을 활용한 관광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각 도시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산대학교 송석기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주)건축사사무소 바인의 황순우 대표, 전북발전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 목포대학교 강봉룡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물관에서는 정책세미나를 통해 얻은 연구 자료를 관람객들의 문화콘텐츠 수요에 부응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군산근대문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관광 효율성을 지닌 유무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축적하고 이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는 13일 오후 1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항창조문화도시 인천(황순우) ▲전주한옥마을 문화적 재생의 시사점(김동영) ▲근대화도시 군산의 과제(김민영) ▲다도해의 모항, 근대도시 목포(강봉룡)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대역사에 관심 있는 관람객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박물관 정책세미나는 근대문화를 대표하는 군산이 나아가갈 방향성을 확인하고, 한 단계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자력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고운 최치원 한·중 학술세미나와 근대화유산의 철도관광 학술세미나, 근대개항도시 세미나 등 박물관 정책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